

스쿨버스 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문이 열리자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자동차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내 옆에는 빨간 마티즈가 앉았다. 버스가 잠시 덜컹거리더니 출발했다. 빨간 마티즈는 영어단어를 외우고 있었다. 버스가 속도를 올리자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창가에 앉은 빨간 마티즈의 사이드미러를 툭툭 두드렸다. 저기……혹시 자리 좀 바꿔 줄 수 있어? 멀미 때문에…… 순간 고요한 버스의 시선이 죄다 나에게로 몰렸다. 빨간 마티즈는 짜증이 난 것 같은 얼굴로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비켜주고 만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빨간 마티즈의 자리에 앉아 그의 눈치를 살폈다. 빨간 마티즈는 신경질적으로 귀에 이어폰을 꼈었다. 더는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방어적인 제스처다. 나는 고분히 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버스는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어지럽지 않아? 외롭지 않느냐구? 하지만 어느 자동차도 내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았다. 나는 차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사람들이 자동차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되었다. 나는 오래 전부터 걸음이 느렸다. 말은 더 느렸고, 생각은 그중에서도 제일이었다. 나는 언제나 한걸음 뒤쳐져 걸었고 그럴 때면 나는 목적지를 놓치고 자주 허둥거렸다. 첫째는 서울외고 다녔구……막내는 이번에 무슨 고등학교 들어갔니? 삼촌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언니는 한숨을 내쉬었고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과껍질을 깎았다. 그냥……그냥 고등학교 다녀요.

삼촌의 두 아들은 모두 수도권의 명문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 둘은,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였다. 엔진이 두 개 달린 차. 누구보다 빠른 차. 그냥 고등학교면, 인문계? 그에 비하면 나는 난데없이 거리를 벗어나 도로에 떨어진 두발짐승이었다. 클락션을 울리는 자동차 사이를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며 지나다녀야 하는 11차선 도로의 두발짐승. 엄마의 얼굴은 사과 껍질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막내가 첫째에 비해, 많이 느리긴 하죠, 그렇지? 그때, 엄마가 팔꿈치로 언니를 툭툭 치며 동의와 양해를 구했을 때, 언니가 그것을 내쳤을 때, 엄마의 표정에서 경멸과 수치를 동시에 알아챘을 때, 나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동차로 보이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필기구 말고 다 집어넣어라.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준 순간 아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허겁지겁 책상 위에 놓인 것들을 가방으로 집어넣었다. 야, 빨리 받아. 내 앞자리는 아까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빨간 마티즈였다. 미안해, 나는 중얼거렸으나 대답은 없었다. 나는 문제하나에 붙어있는 엄마의 얼굴 한 번, 삼촌의 자신만만한 얼굴 한 번, 언니 한 번, 빨간 마티즈의 신경질 한 번을 생각하며 수학 기말고사를 풀었다. 시험지를 걷어야 했을 때 내 OMR 카드는 정답지라기보다는 편지였다.

응, 엄마, 이번 시험? 전보다 쉬웠어. 이번에 백 점 많이 나오면 어찌지? 도요타의 전화소리가 귀를 어지럽혔다. 내 앞에 앉은 마티즈는 아까부터 답을 맞추다가, 화를 내기도 하고, 다시 답을 맞추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시험 다 쉬웠어. 빨간 마티즈는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하지만 모두들 시끄럽게 경적소리를 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빨간 마티즈의 울음소리는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 끼이익. 고통을 호소하는 비염 같은 브레이크 소리에 하염없이 두려워진 것은 나뿐이었다.

시험이 끝나는 날에도, 아니, 시험이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학원가는 북적거렸다. 따라서

버스정류장에는 사람이 만원이었다.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자동차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고, 느린 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없었다. 나는 결국 느린 걸음으로나마 집까지 걸기로 결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나를 따라 일어나는 자동차가 하나 있었다.

빨간 마티즈였다. 우리는 오 분 정도 같은 길을 걸었다. 참다 못한 내가 입을 열었다. 너도 근처에 살아? 마티즈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너도 성원아파트 살지? 같이 가. 우리의 걸음은 긴 침묵과 짧은 대화가 전부였다. 문득 내 걸음에 맞추어주고 있을 빨간 마티즈에게 미안해졌다. 미안해, 내가 걸음이 많이 느려서. 굳이 안 맞춰줘도 돼. 아냐,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나도 걸음이 느린 것 뿐인데 뭘. 점점 말티즈의 사이드미러와 유리창, 타이어의 모습이 사라지고 빨간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은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번 수학시험 많이 어려웠지? 응. 우리는 그날 느린 걸음으로 한참동안이나 거리를 걸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로가 아니었다.